

국정과제 반영 위해 전방위 행보

정현을 익산시장, 국회 방문해 핵심사업 반영 위한 지원 요청
전북권 광역전철·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사업 당위성 전달

익산시가 지역 핵심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현을 시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정현을 시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익산시가 발굴한 주요 대선공약과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 공약에 포함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발굴한 △청년 올인원(All-in-One) 타운 조성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에게는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전달했다.

한병도 의원에게는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클러스터 조성은 데이터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과 재난안전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다.

시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실적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 미래를 바꾸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정과제 반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관광 우수지자체' 선정

웅포 곰개나루, 노을·캠핑·야경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주목

익산시가 웅포 곰개나루를 중심으로 추진한 전략적 관광 활성화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12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부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열린 '빅톡컨 2.0 포럼'에서 '지역관광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빅톡컨)' 사업 반영 성과와 관광 활성화 실적을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2021년 웅포 곰개나루를 대상으로 빅톡컨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4만 7,000여 명이 웅포를 찾았으며 3년 연속 방문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웅포 곰개나루는 익산 9경 중 하나

로 금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낙조와 캠핑장, 야간경관이 어우러진 관광지다.

이에 시는 △노을품은 삼계탕 말복엔 닭치고 익산 △웅포 노을빛 드로잉 페스타 △명품 도그나루 캠핑 △별밤 시티투어 등 웅포 곰개나루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연이어 기획해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올여름에도 '말복엔 웅포 시즌2' 닭 잡고 물 튀기자를 준비중으로,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관광객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웅포를 꾸준히 가꿔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홍보와 콘텐츠 기획을 강화해 대표적인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북 최고(最古) 항공사진 행정업무에 활용

전북 최초의 시(市) '군산부(府)' 1940년대 촬영분 정사영상 제작

군산시가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947년도에 군산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 49매를 비롯해, 1969년 촬영분까지 총 195매에 대한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정사영상은 항공사진의 지형지물을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보정한 영상을 말한다.

이중 1910년 군산부(府)로 승격돼 전

북 최초의 시(市)였던 군산을 1947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은 전북 최고(最古)의 항공사진이라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녔다.

또한 작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한 군산시 항공사진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영상정보 구축계획 노력을 진행했다.

특히 산림, 농지, 세무, 건축부서 등 시정에 공유하며 활용할 시스템 탑재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관원들이 전 형질변경 양성화 근거 및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검토 등의 시민 혜택도 기대된다.

이번에 제작된 정사영상은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내부 행정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민은 국토부의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적업무가 단순히 토지를 측량하는 업무를 넘어, 하늘의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분야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연도별 항공사진 추가 제작 등 4차산업 시대 융복합 행정의 기초자료를 다양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호원대, 글로벌 대학 본 지정 대응 '총력'

호원대·전주대 연합, 예비 지정

통과... 9월 본 지정 심사 '만전'

군산시와 호원대학교가 글로벌 대학 본 지정을 위한 대응 회의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호원대학교-전주대학교 연합이 '글로벌 대학 30' 사업 1차 관문인 '예비 지정'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9월에 예정된 본 지정 심사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글로벌 대학 30' 사업은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국책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총 18개 대학이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됐으며 9월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호원대-전주대 연합은 캠퍼스에 4대 분야(K푸드·K컨텐츠·K헬니스·K테크) 체험형 실습 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과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전북의 글로벌 문화경쟁

력 강화는 물론 세계인이 K-컬처를 알기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호원대학교 정의봉 부총장은 "글로벌 대학 사업은 RISE 사업, 대학 상생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군산시의 K-컬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김현석 복지교육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며 "호원대와 전주대 연합이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어울림 한마당' 개최

군산시(시장 감임준)가 12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의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의 학습권 확대와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 뒤, 개회식과 명랑운동회, 소그룹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성인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38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작년보다 한층 다채해진 프로그램 구성 덕에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웃음과 감동을 만들어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5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익산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2025년 주요 국가예산사업 설명 및 자문, 위원 제안 사업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북자치도 및 익산 관련 공약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대선공약과 연계한 지역 정책 발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와 함께 △1,0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열린 관광지 확대 △파크골프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건의 제안사업에 대한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신규 제안사업과 정책에 대해 제안자 중심 자문, 관련 부서 후속 조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